■ 광주은행 신입사원들의 '체험 삶의 현장'

제조업체·복지시설서 땀과 봉사의 의미 새겨

예비 은행원들의 가슴은 한 겨울 추위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이웃에 전할 정도로 뜨거웠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사회복지법인 '애일의 집'. 정신지체 장애우 50여명이 모여사는 이곳에 파란조끼를 입은 젊은이 15명이 방문했다. 광주은행 신입사원인 이들은 애일의 집 대표에게 조그만 봉투 하나를 건냈다.

대졸 공채 15명 전원 참석

봉투에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이 흘린 땀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날 오전 근처인 광산구 오선동 하남산단에 있는 한맥D&S라는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일당에는 개인당 1만4천원과 한맥D&S 사장이 준 금일봉이 더해졌다. 일명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 번 돈이다.

광주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이날'체험 삶의 현장' 및 불우시설 봉사활동에는 대졸 공채 신입사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맥D&S에서 이 회사 직원들과 똑같이 플라스틱 포장재 원단 제조과정을 체험했다. 직접 알갱이를 기계에 부어 사각형의 플라스틱 원단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이미경(여·24)사원은 "난생 처음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정직한 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면서도 "12시간씩 일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을 보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3D업종을 기피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번 경험 가슴속 간직"

예비행원들은 애일의 집에서도 실내청소와 목욕시키기, 말벗되기, 세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정신지체 장애우들은 이들이 아들과 친구, 형같은 대해주자 껴안거나 손을 잡고 놓치않는 등 자신들의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봉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예비행원들과 장애우들이 한데 어울려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약속했던 시간을 초과해 두시간동안이나 이어지기도 했다.

정두영(26)사원은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목욕봉사에 자청했는데 즐거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은행원이 되겠지만 이번 경험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해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인력개발팀 안일탁과장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지역민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금융인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이들이 다음달 현장에 배치되면 따뜻한 가슴한 가진 금융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은행 신입사원들이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애일의 집'을 방문, '체험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일당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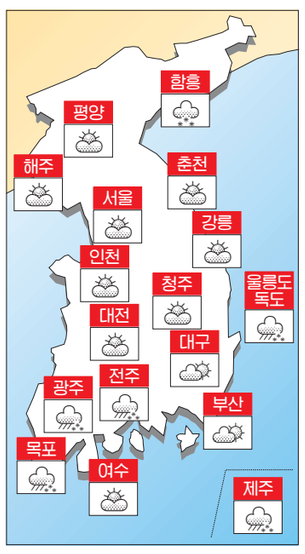
동장군의 기지개

구름많고 눈 또는 비가 오겠다.

1월 27일 (음 12월 9일) ◇전국날씨

날씨

광 주	구름많고 눈/비	-2~3℃
목 포	구름많고 눈/비	0~4℃
여 수	구름많음	0~5℃
완 도	구름많고 눈/비	0~5℃
구 례	구름많고 눈/비	-4~4℃
해 남	구름많고 눈/비	-3~5℃
장 흥	구름많고 눈/비	-3~5℃
고 흥	구름많음	-1~4℃
순 천	구름많고 눈/비	-4~3℃
영 광	구름많고 눈/비	-2~3℃
진 도	구름많고 눈/비	-2~4℃
전 주	구름많고 눈/비	-2~3℃
남 원	구름많고 눈/비	-4~3℃
정 읍	구름많고 눈/비	-2~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목 포 밀물〈 08:39 20:31 썰물〈 00:55 13:43
여 수 밀물〈 03:24 15:17 썰물〈 09:29 21:51

▲해뜸 07:36 ▲해짐 17:55 ▲달뜸 12:13 ▲달짐 02: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일)	29(월)	30(화)	31(수)	2/1(목)	2(금)
날 씨						
최저/최고	-3/3	-4/2	-3/2	-4/1	-5/1	-4/4

정전·교통사고 잇따라

광주·전남 폭설…곳곳 차량 추돌

광주·전남에 눈이 내리면서 정전·교통사고 등이 잇따랐다.

26일 오전 0시 6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95㎞ 하행선에서 A(48)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방호벽을 들이 받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아반떼, 옵티마, 그랜저 승용차 등 5대가 트레일러를 피하려다가 추돌,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낮 12시께에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왕복 2차로에서 B(42)씨가 운전하던 1t 포터 트럭이 앞서가던 1.5t 봉고 트럭을 추월하다 마주오던 또 다른 화물트럭과 충돌했으며 이 사고 뒤 2대의 차량이 추가로 충돌했으나 차량들이 서행한 탓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밖에 오전 11시 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9번로 입구에서 라노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광주·전남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 낮 12시 55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사무소 인근 변압기 퓨즈가 끊겨 일대 25가구가 30여분간 정전됐다.

한전 측은 고압선과 변압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합선돼 퓨즈가 끊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날씨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오전 부터 눈이 내리면서 전기 고장 신고도 평소 보다 3배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집 6억여원 가로챈 3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

광주 광산경찰은 26일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35·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지난 10일 목포에 거주하는 조모씨(45·여)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 모두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운조루 뒤주' 또 생겼다

광주시 남구 주월1동 주민들이 26일 동사무소 한 켠에 마련한 '운조루의 뒤주'에 쌀을 채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월 1동 사무소에 광주서 6번째 개설

어려운 이웃들이 무료로 쌀을 퍼가게 하는'운조루의 뒤주'가 또 생겼다.

광주시 남구 주월1동 '효사랑 나눔가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주월1 동사무소안에서 '효사랑 나눔 가게 주월1동 점' 개점식을 갖고, 뒤주에 쌀을 가득히 채웠다. 주월1동사무소에 사랑의 뒤주가 설치됨에 따라 광주에는 남구 주월동·백운2동·월산5동· 서구 금호1동·화정3동 등 '운조루의 뒤주'가 모두 6개로 늘었다.

개점식에서는 후원자 18명이 현금 78만원과 쌀 20㎏들이 19가마를 기부했다.

이 가게는 주민자치위원 등 2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이종일 목사는 "한 동네 사는 어려운 이웃을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의미에서 가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운조루의 뒤주'는 영조 52년(1776년), 낙안군수 류이주(柳爾胄)가 세운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의 운조루(雲鳥樓) 곳간에 놓인 뒤주로, '누구든 마음대로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했다.

230년만인 지난 2006년 1월 광주시 서구 금호1동사무소에 '운조루의 뒤주'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역민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자에 무죄 선고

법원, 사고 막기 어려워

승용차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송경근 판사는 승용차로 좁은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폐쇄회로 TV에 찍힌 차량의 진행 모습,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22일 마포구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길가에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50~100㎞ 속도로 좁은 일방통행로 160m를 수초만에 역주행하면서 행인과 다른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사상자를 6명을 낸 뒤 기소됐다. 질주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와 후진기어를 작동했다는 박씨의 주장처럼 근처 음식점의 폐쇄회로 TV에는 브레이크 및 후진등이 켜져 있는 장면이 녹화돼 있고 목격자들은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밑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자녀 휴대전화 상한요금 재충전 때

부모동의 꼭 받아야

소비자정책심의위 의결

앞으로 청소년들이 휴대 전화로 유해물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이동 전화 상한 요금을 재충전할 때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보호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분쟁 사례가 잦아 소비자 상담 및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 상반기중에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Green 계약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린 계약서는 청소년 고객이 부모를 동반하고 이동통신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할 때 각종 유해 콘텐츠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이를 고지해주는 제도다.

또 청소년들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원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부모에게 동의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식품 등 개별 품목별로 따로따로 규정된 현행 리콜제도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리콜제도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발적 리콜 규정이 없는 등 통합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이용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제 대금 일부가 연체됐을지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피싱 e메일로 개인정보 빼내

경찰, 20대 구속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6일 은행 대출신청 광고를 가장한 e메일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 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공범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포털 사용자들에게 e메일을 발송,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공단 대출 로비 50억 챙긴 5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개발 대표 장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4~6월 공단 과장 출신인 공범 김모씨와 함께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G사 대표에게 "잘 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에게 부탁해 공단에서 500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탈북자 신상 공개 인권위,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경찰이 탈북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강원지방경찰청은 기관경고, 홍보담당자는 경고조치 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탈북자 A씨가 지난해 5월 "탈북해 남한으로 온 직후 언론을 통해 내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북한에 남아있던 아내와 두 아들, 친척들이 모두 행방불명됐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소방관에 붙잡힌 초보 도둑들

쌍나팔

○…빈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초보' 도둑 2명이 옥상으로 도망했다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붙잡혀 철창행.

○…공사판을 전전하던 A씨와 B씨는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 주택가에서 문이 열린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금품 10여점을 털다가, 집주인(34·여)이 들어와 "도둑이야" 소리치자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2층에 세들어 사는 C양(12)이 "불이야"로 잘못 알아듣고 119에 화재 신고.

○…A씨 등은 급한 김에 2층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막혀 도망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